

## 2006 프로야구 마감

3 KIA, V10을 꿈꾼다

# “김주형, 매일 배팅볼 1천개씩”

KIA의 2007 시즌 목표는 한국시리즈 진출이다. 이루기는 하지만 전망은 '호랑'이다. 팀 전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 될 수 있기 때문  
내년 시즌 시작까지 150여일이 남은 시점에서 마운드와 타선을 중심으로 예상 전력을 점검해 봤다.

### 서감독, 차세대 거포 키우기 특명

### 고우석·루키 양현종 마운드 가세

### 동계훈련 통한 전력 보강...내년 KS행 목표

#### ▲선발 마운드 위력 '글썸'

2006시즌엔 마운드의 공백때마다 정원, 이상화, 신용운 등이 등장,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포스트시즌 진출의 큰 힘이 됐다.

하지만 2007년은 다르다.

선발-중간-마무리 등을 마다않고 소급 같은 역할을 해왔던 이상화는 내년 시즌 군 입대로 전력에서 이탈한다.

이상화의 이탈에 따라 선발 마운드는 그레이싱어-김진우-전병두-윤석민-장문석 등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놓고보면 팬층은 라인업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글썸'이다.

올 시즌 막판 어깨 통증을 호소한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는 부상 재발이 우려되고, 김진우의 들쭉날쭉한 컨디션도 마음에 걸린다. 제구력이 불안한 전병두도 상황은 마찬가지.

동계훈련으로 기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믿을 만한 '에이스'가 없다.

중간은 신용운, 박정태, 정원, 조태수

등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인 양현종이 가세하고, 고우석이 군 제대 후 복귀하게 되는 데 전력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한기주가 마무리로 버티고 있어 다소 안심이다.

#### ▲사라진 거포 어디서 찾나?

믿을만한 4번 타자가 없는 타선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시즌을 장담하기 어렵다.

예상 라인업은 이용규(우익수)-김원섭(좌익수)-장성호(1루수)-신입 용병(중견수)-조경환(이재주·지명타자)-홍세완(유격수)-손지환(2루수)-김상훈(포수)-이현곤(3루수) 등으로 잡혀진다.

교체요원으로는 이종범, 한규식, 김주형 등이 꼽히고, FA 자격을 얻은 김종국의 잔류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적쟁' 조경환의 지명타자 낙점에 대해 다소 이해 하는 여론도 있지만 서정환 KIA 감독의 생각은 확고하다.

서 감독은 "조경환의 경우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다"면서 "동계훈련동안 바깥

쪽 변화구에 대한 약점만 잡으면 지명타자로서 그 가치를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KIA는 또 '전국구 스타' 이종범은 일단 주전력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트 스피드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노장'을 불박이로 기용하기엔 무리라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용병 장사에 실패했던 KIA로선 아직도 4번타자가 미덥지 못하다.

서 감독은 "일단 용병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다. 용병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시즌 초반은 망치게 된다"면서 "이번 겨울 운동을 통해 타선에서 거포를 발굴해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감독은 실제로 '차세대 거포' 김주형에게 매일 1천개씩의 배팅볼 연습을 지시했다.

물론 당근 전략도 곁들여 졌다. 내년 시즌까지 남은 150여일 가운데 126일 이상 1천개씩을 때려냈을 경우 전 경기 출장을 약속했다.

서 감독의 속 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 ▲2007년 목표는 KS진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꼴찌'에서 출발하는 마음과 4강 진출 후 다음 시즌을 시작하는 것은 그 부담감부터 틀리다. 서 감독은 일단 내년 시즌 목표에 대해 "이제는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면서 "올 겨울 뼈를 깎는 마음으로 훈련에 전념한다면 가능한 목표"라고 못박았다.

2007년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세운 서 감독이 올 겨울 어떤 전력보강과 특별훈련으로 빈약한 전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지 기대가 모아진다. <끝>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권도 중주국서 격파 시범

1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세명 위로 뛰어오르며 승판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와 '황태자' 에니 엘스(남아공)가 나흘만에 다시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됐다.

# 맞대결

### 내일 투어챔피언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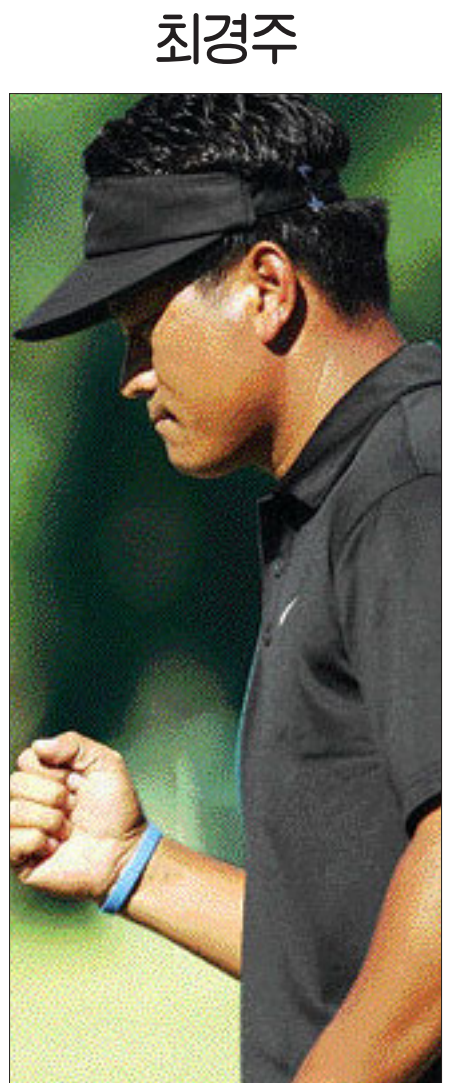
### 같은 조에 편성돼

최경주와 엘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투어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티타임에서 3일 오전 1시10분 같은 조로 1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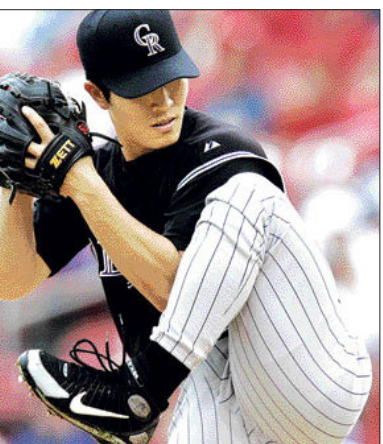
지난 달 30일 크라이슬러챔피언십에서도 챔피언십에서 맞붙었던 최경주와 엘스는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니워커클래식과 상하이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BMW아시아오픈에서도 파트너로 뛰는 등 동반 플레이가 유난히 잦았다.

특히 이번 투어챔피언십에서는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이 출전하지 않아 엘스와 동반 플레이를 하는 최경주로서는 그만큼 TV 카메라에 노출되는 비중도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 세계랭킹 2위 짐 푸릭(미국)과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이 3일 새벽 3시 같은 조에서 출발하고 스티븐 에임스(캐나다)의 불참으로 출전 선수 27명이 되는 바람에 톰 퍼니스 주니어(미국)는 혼자서 1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3일부터 6일까지 오전 2시에 SBS골프가 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병현 재계약 협상 순조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사범)의 재계약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의 지역 일간지 덴버포스트는 1일(한국시간) 콜로라도가 올해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김병현과 재계약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구단이 내년 연봉 250만달러에 대한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병현의 소속팀 잔류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김병현이 내년 선발진 한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콜로라도가 제이슨 제닝스와 에런 쿡, 제프 프란시스 등 제3선발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짠 후 김병현과 시즌 후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는 조시 포그 등에 대해 결정할 게 없어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소렌스탐 6년 연속 우승 막아라”

### ‘소렌스탐의 6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라’

3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미에현 시마의 가시고지마골프장(파72·6천45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에 출전하는 '코리안 파워'에 내려진 과제다.

미즈노클래식은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독무대였다. 코레코드(63타)와 대회 54승 최스타(24언더파 192타) 기록을 갖고 있는 소렌스탐은 2001년부터 5년 동안 15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14라운드를 60대 타수를 냈다.

15라운드 평균 타수가 65.67타에 불과한 소렌스탐은 5차례 우승을 일궈내는 동안 9타차 완승이 두 차례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처럼 미즈노클래식만 출전하면 필멸 나는 소렌스탐은 지금까지 어떤 선수도 밟아 보지 못했던 단일대회 6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을 꿈꾸며 일본 땅에 발을 디뎠다.

지난 9월 스테이트클래식 우승 이후 미

### 내일 LPGA 미즈노클래식 개막

### 장정 등 태극낭자들 22명 출전

뤼은 통산 70번째 우승도 탐내고 있는 소렌스탐에 맞설 상대는 역시 '코리안 파워'가 주류가 될 전망이다.

LPGA 투어 소속 16명과 일본여자프로골프 소속 6명 등 22명에 이르는 한국 선수 가운데 소렌스탐의 6연패를 저지할 후보로는 장정(26·기업은행)이 꼽힌다.

LPGA 투어 상급랭킹 9위를 달리고 있는 장정은 최근 열린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일본여자오픈을 제패, 일본 무대에 남다른 자신감을 얻었다.

장정은 작년 대회 때도 6위에 올랐다. 미즈노클래식에서 유독 성적이 좋은 김영(26·신세계)도 눈여겨 볼 선수. 김영은 2004년 7위에 이어 작년에는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까지 세우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해 3승을 올린 김미현(29·KTF)과 우승 한차례를 포함해 '톱10'에 5번이나 이름을 올린 이마나(25·KTF)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더구나 올해는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한류돌풍'을 일으킨 '일본파'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코리안 파워'는 더 강해졌다.

올해 3승을 거두면서 일본 상급랭킹 2위에 올라 있는 전미정(24), 역시 세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상급 4위를 달리고 있는 이지희(27),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 4차례에 상급 6위인 신현주(26·하이마트) 등 '일본파'는 1995년 고우순(42)에 이어 일본여자프로골프 소속 한국 선수로서 미즈노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시즌 12승 합작일 뿐 아니라 3개 대회 연속 우승과 사상 초유의 LPGA의 아시아 투어 석권이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